

제6장 기 타 유 적

1. 지정된 유적

1) 한내돌다리

- 위치 : 보령시 동대동 829-1, 대천천 고수부지
- 지정 :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39호(1992년 8월 17일)

한내돌다리는 대천천 하류에 놓여진 다리이다.

즉 현재 철교에서 위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었다. 대천천은 오서산과 백월산에서 발원하여 서남향으로 비교적 급류로 흘러 서해바다로 유입되는 18km의 하천이다. 서부해안 지역의 평야지대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인류가 대천지방에 정착하게 된 때부터 교통의 장애가 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대천천에는 다리가 놓였을 것이다.



한내돌다리

한내돌다리(大川橋)에 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17세기 후반 유형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동국여지지』에 보령현 남쪽 20리 지점에 다리가 있다고 하였고, 1748년의 『신안현지』, 1760년의 『여지도서』 등에도 대천천 하류에 석교(石橋)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의 한내돌다리이다.

한내돌다리는 조선말기까지 남포현과 보령현을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으나, 일제시대 초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돌다리 위로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으므로 돌다리 아래쪽 100m 지점에 나무다리를 놓고 신작로를 이곳에 연결하여 한내돌다리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결국 1913~1915년 사이에 보령지방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돌다리 아래 100m 지점에 나무다리를 세우고 신작로를 내면서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것이었다. 이어서 1931년 장항선 철도 개통으로 과거의 도로 부지는 대부분 철도 부지로 들어가고, 도로는

오늘날 위치인 동대교 쪽으로 옮겨졌다.

한내돌다리에 쓰인 재료는 거의 화강암이고 단 하나의 교각돌만이 검은 사암이다. 돌다리에 쓰인 화강암은 내향동의 왕대산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왕대산 주변에서는 현재도 화강암이 채석되고 있다. 왕대산에서 채취된 석재는 바닷가까지 굴림목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바닷가에서 뗏목으로 설치 장소까지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간조 때를 이용하여 해안에서 뗏목에 돌을 올려놓은 뒤 만조, 특히 사리 때의 만조를 이용하여 현장까지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내돌다리 설치장소가 하폭(河幅)이 넓은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출입하는 대천천 하류에 건설된 것도 바다를 통한 석재운반의 편리성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다리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리의 길이는 하천 양쪽, 평상시 물이 잠기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00m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1991년 하상에 드러난 교각은 현 하천 폭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길이는 27m였다. 다리의 칸수는 전설로 12칸이라고 하나 가장 긴 시렁돌 454cm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2칸은 되어야 100m가 된다. 따라서 12칸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칸수가 많다는 의미로 불린 것 같다.

1991년 드러난 한내돌다리의 몇 가지 유구 중 시렁돌은 하천 현장에 4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1978년 대천읍사무소에 옮겨 놓았는데 총 16개였다. 이렇게 확인되어 회수된 다리의 석재가 있는 반면에 다른 곳으로 운반되어 사용된 석재도 있으니, 대천천 제방 공사시에 깨서 사용하기도 하고, 오천 영보리 갈매못 성지의 순교복자비로 이용된 것도 있고, 대천읍사무소내의 새마을 정신비 좌대로 사용된 것도 있다.

현재의 한내돌다리는 원위치가 아닌 대천천 고수부지에 회수된 석재만을 이용하여 6칸으로 복원한 것이다.

해마다 대천문화원 주관으로 ‘한내 12칸 돌다리 밟기’ 민속행사가 열린다.

2) 보령경찰서 망루

- 위치 : 보령시 대천동 171번지 보령경찰서내
- 지정 :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272호(1985년 7월 19일)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하여 보령경찰서가 남으로 후퇴하였다가, 9·28서울 수복 후 돌아왔으나 지방의 불순분자와 북한공산군의 잔당들이 성주산 일대에 웅거하면서 치안질서를 위협하였으므로, 경찰서를 방호하기 위하여 1950년 10월초 당시 경찰서장이던 김선호 서장이 지역주민의 협조와 노력지원을 받아 성주산

일대의 자연석을 운반해다가 1951년 2월에 완공한 건물로 야간 경계근무는 물론 관내 치안유지에 활용하던 전적물(戰蹟物)이다.

자연석과 시멘트를 섞어 높이 10m, 둘레 15m의 규모로 쌓았으며, 안에서 밖으로 사격할 수 있도록 총안(銃眼) 22개를 설치하였는데 내부는 4층으로 마루를 깔고, 계단을 이용하여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보령경찰서 망루

지붕은 8각이며, 보령경찰서에서 지붕 및 기타 파손부분을 손질하면서 관리해 오고 있다. 정오와 자정을 알리는 소리와 통행금지, 화재 등의 비상시 사이렌을 울리던 시설물로서 최근까지 사용하였다.

3) 편무성 가옥(片戊成 家屋)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04호(1988년 9월 30일)
- 위치 :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조선후기 팔작지붕으로 된 一자형의 고택이다. 동향사면으로 되었으며, 정면 7칸 측면 3칸이다. 방형의 초석 위에 방형의 고주(高柱)를 올렸고, 5량보를 짜서 지붕틀을 만들었다. 안채에는 각 2칸의 넓은 안방과 대청, 그리고 부엌이 있으며, 1칸의 건넌방을 두었고, 대청에는 3분합 띠살문을 달았다.



편무성 가옥(2008)

지붕의 기와에서 옹정 8년(擁正八年)이라는 글씨가 발견되어 1730년에 지어진 건축물로 짐작된다.

4) 김좌진장군 묘(金佐鎭將軍墓)

- 지정 : 시도기념물 73호 (1989년 12월 29일)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재정리 산540

김좌진(1889~1930)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출신이며, 호는 백야(白冶)이다.

1920년 10월 일본군 대부대가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만주로 출범하자 소속 독립군인 북로군정서군을 백두산으로 이동시키던 중 청산리(靑山里)에서 일본군과 만나 전투를 벌여 일본군 3천여 명을 살상하는 커다란 전과를 올렸다. 이 청산리 대첩은 우리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김좌진장군 묘

1930년 1월 24일 공산주의자의 흉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만주에서 교포들의 사회장이 치러졌고, 만주에 안장되었다. 부인 오숙근 여사가 1934년에 방물장수로 위장하고 만주에 가서 장군의 유해를 모셔와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안장하였다가 1957년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현 위치는 장군의 외가집 한산이씨의 입야였으나 보령시에서 매입하여 성역화를 추진하였다.

묘소 뒤에는 장군의 부친 김형규의 묘소가 있으며, 장군의 묘 옆에는 묘비 및 상석·장명등이 갖추어져 있다. 주위에는 곡장(曲牆)이 설치되었다.

보령시에서는 묘역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장군의 업적과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청산리 대첩일인 매년 10월 22일에 묘소에서 각계 인사들이 모여 추모제향을 올리고 장군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5) 청소역(靑所驛)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341-3
- 지정 : 문화재청등록문화재 제305호
(2006년 12월 4일)

청소역은 일제시대 장항선 철도(당시는 충남선)가 광천에서 남포까지 연장 완공되면서 1929년 12월 1일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1958년 9월 보통역으로 승격한 후 1961년에 지어진 벽돌조 역사이다.



청소역

원래의 명칭은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진죽역’으로 불렸지만 1988년 현재의 ‘청소역’으로 변경되었다. 장항선에서 남아 있는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로서 희소적 가치가 있다. 2006년 12월 4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305호로 지정되었다.

6) 외연도상록수림(外煙島常綠樹林)

- 지정 : 천연기념물 제136호(1962년 12월 3일)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의 상록수림은 마을 뒤쪽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면적은 10,390㎡이다. 상록수림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들로는 후박나무·동백나무·식나무·보리밥나무 등의 상록활엽수, 팽나무·찰피나무·딱총나무·푸조나무·자귀나무·상수리나무·회나무·자작나무·매죽나무 등의 낙엽활엽수, 담쟁이덩굴·사위질빵·청미래덩굴·노박덩굴·새머루 등의 상록덩굴식물, 보춘화·노란장대 등의 풀 종류가 자라고 있다.

나무는 동백나무 70%, 팽나무 20%, 후박나무가 10%를 차지하여 특히 봄에는 동백꽃이 아름다워 장관을 이룬다.

이곳의 동백나무는 수백 년 전에 섬사람들이 남쪽으로 왕래할 때 옮겨 심은 것이라고도 하며, 중국 제(齊)나라 장군으로 한(漢)나라에 쫓겨 병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항복을 강요받자 병사들과 섬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홀로 중국으로 건너가 자결하였다는 전횡(田橫) 장군이 심은 것이라고도 한다.

외연도 상록수림은 마을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당산림으로서 잘 보호되어 왔으며, 내부에는 1936년 지은 전횡장군 사당이 있어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 그 이전에는 돌제단을 만들고 전횡장군 제를 지냈다 한다. 전통 주민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표적 상록수림의 하나로써, 식생의 원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생물학적 연구가치도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외연도 상록수림이 오랫동안 원형대로 잘 보존된 결정적 원인은 당제를 지내는 당산이었기 때문이다.



외연도상록수림

7) 보령 산수동 소나무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갈현리 산 28
- 지정 : 도지정 기념물(소유: 신천강씨 문중)

수령이 500년으로 추정되며 생김이 기묘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전국적으로 진귀한 나무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이 나무는 둘레가 270cm에 지상 70cm 높이에서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져 동쪽으로 8~9m 뻗어 나갔으며 그 높이는 170~230cm이다. 골고루 퍼진 가지가 지면과 거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부터 영험이 깃든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를 꺾거나 나무에 해를 입히는 사람은 병을 앓게 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속설이 전해오고 있다. 해마다 산수동 신천강씨(信川康氏)문중에서 동제(洞祭)를 지내고 있다. 산수동 마을에서는 ‘방술나무’ 또는 ‘방술령(靈)’으로도 부른다.



보령 산수동 소나무

8) 토정 이지함선생 묘(土亭李之菡先生墓)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 320호 (1992년 8월 17일)
- 위치 :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27-3

이지함(李之菡) 선생의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호는 토정(土亭)이다.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만형 지번(之蕃)과 화담 서경덕(徐敬德)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 등에 능통하였으며, 토정비결의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토정 이지함 선생묘

벼슬하기 전 한때 마포강변의 흙집 위에 정자를 짓고 살면서 스스로 호를 토정(土亭)이라 하였고, 어염상고(魚鹽商賈)로 많은 곡식을 마련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평생 벼슬을 사양하다가 1573년(선조 6) 도덕과 학문이 뛰어난 선비로 추천되어 포천 현감이 되어서는 백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방안을 상소하였고, 임진강 범람을 예견하여 수많은 인명을 구제하였다. 아산현감이 되어서는 결인청(乞人廳)을 지어 빈민을 구제하는 데 힘쓰다가 1578년(선조 11) 재임 중 순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실학(實學)의 효시(嚆矢)로 알려지기도 한다.

1686년(숙종 12) 보령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주벽(主壁)으로 배향(配享)되었고, 1761년

(영조 37)에 문강(文康)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고만(高巒)에 위치한 묘역에는 선생과 그의 형제와 존비속 그리고 조카 이산보 등 14기 묘가 있는데, 선생의 학문과, 전해지는 여러 일화로 인하여 명당자리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지함 선생의 묘 앞에는 조그만 비석과 상석이 있을 뿐이어서, 그의 생전의 검소함과 그 후손들이 그것을 끝내 지켜왔음을 보여준다. 이지함은 부모의 묘소를 여기에 쓴 다음 언젠가는 앞의 바닷물이 범람하여 묘소에 침범할 것을 예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장사를 하여 돈을 모아 묘소 앞에 제방 쌓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다. 이지함의 효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9) 죽도 앞바다 고려청자 매장구역

- 지정 : 사적 제321호(1987년 9월 18일)
- 위치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1983년경부터 고려청자 등이 그물에 걸려 올라와 198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저유물조사단으로 하여금 해저매장문화재 조사를 벌이게 한 결과 고려청자 유물 매장 구역으로 확인된 곳이다. 죽도를 중심으로 약 7.07km²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곳에서 출토 되는 기사명(己巳銘) 청자는 고려 문종 10년(1269)의 시기인데, 이 무렵 전남 강진이나 전북 부안 등지에서 생산되어 보령 연해안을 거쳐 북쪽으로 운송되다가 배가 침몰되어 바다 속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10) 보령 장현리 귀학송(保寧 長峴里 歸鶴松)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69
- 지정 : 충청남도기념물 159(2002년 1월 10일)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 이산해의 동생이며, 토정 이지함의 조카인 동계(東溪) 이산광(李山光 1550~1624)이 광해군의 정치에 회의를 느껴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은거하며, 시와 글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정자가 귀학정(歸鶴亭)이었다. 이후 이곳에는 이산광의 후손들이 세거하여 왔고,



장현리 귀학송

그의 6대손인 이실(李實 1777~1841)이 소나무를 심었는데, 6가지로 뺀 수형의 소나무로 성장하여 현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귀학송(歸鶴松) 또는 육소나무로 불리기도 한다.

11) 신경섭 가옥(申慶燮 家屋)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91호(1987년 12년 30일)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688

조선후기의 팔작지붕으로 된 ㄱ자형의 사랑채와 一자형의 안채가 어우러져 ㄷ자형의 구조를 이룬다. 안채에는 안방·대청·건넌방·고방·부엌을 들였고, 사랑채에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으로 되었는데, 사랑방 옆에 높은 누마루를 들여 전원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신경섭가옥

상량문에 ‘崇禎紀元後四癸卯(송정기원후4계묘)’라 써어져 있어 1843년에 지어진 고택임을 알 수 있다. 가옥의 동쪽 대문채는 우진각 지붕으로 여기에는 신석봉(申錫鵬)의 효자정문 현판이 걸려 있다.

12) 고운 최치원 유적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813-8 남포방조제 내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5호(1984년 5월 17일)

남포면 월전리 보리섬(麥島)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부르는데 높이 3m, 폭 1.8m 되는 바위 8개가 병풍처럼 서 있다고 하여 병풍바위라고 한다. 최치원이 신라 말의 혼란기에 세상을 비관하고 전국을 유랑할 때 이곳 보리섬과 성주사를 왕래하며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시문을 짓고 수학(修學)하면서 이 병풍바위에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맥도 최치원 유적

최치원은 경주최씨의 시조로 호를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이라 하며,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한학자이고, 당나라 유학시절에는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써서 이름을 날렸다. 이 보리섬은 남포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해안에서 떨어진 아담하고 운치있는 섬이었으나, 방조제 건설로 육지로 변했다.

13) 이현구 가옥(李顯九 家屋)

- 지정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88호(1987년 12월 30일)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96

조선후기 팔작지붕으로 목조 와가이며, 앞에는 처마를 달아내었고, 쪽마루를 거쳐 방에 출입할 수 있게 꾸몄다. 一자형의 집으로 앞면 좌측에 주방을 배치하고 우측에 대청을 놓았으며, 방문은 분합문(分閤門)으로 만들어졌다. 가옥은 정남향이며, 건물 주변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이 퇴락된 상태였다.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말기 수원성 방어사(水原城防禦使)의 본가로 전한다. 이 가옥은 근래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현구 가옥(1997)

14) 보령 독산리 독살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해안
- 지정 : 민속자료 16호(2000년 9월 20일)

보령지방의 해안을 비롯한 충청도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예부터 갯벌에 살을 매어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가 많이 행해졌다. 그중 갯벌에 돌로 담을 쌓아 만든 살을 독살이라 한다. 독산리에는 10곳의 독살이 있었는데 모두 훼손되고 이 곳 독살만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2개였던 독살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이다. 북쪽 날개의 길이는 70m 정도이고 남쪽의 날개는 100여m 정도이다. 이곳은 어획량이



보령 독산리 독살

상당히 많았으며, 조금만 보수한다면 현재도 어획이 가능하다.

한편 독산리 독살의 근처인 관당리 무창포 해안에도 여러 개의 독살이 있었는데, 1970년부터 연안어족의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점차 폐지되었다. 그 중 무창포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동뒤 독살이 최근까지 있었고, 1997년 복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설계가 잘못되어 실제보다 높고 넓게 만들어졌으며, 그나마 예산 부족으로 절반만 완성한 채로 남아 있다.

15) 보령 항일 애국지사 및 3·1항일지사 의거 추모비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사무소내
- 지정 :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관리번호 : 23-1-37)

주산면사무소 내에 2개의 비석을 갖추어 만든 시설이다. 2001년도 대천문화원에서 보령 항일애국지사추모비를 주산면사무소 내에 세우고, 동시에 기존의 3.1운동의거기념비를 주산초등학교 앞에서 옮겨와 함께 세워 만든 현충시설이다.



주산 항일의거 추모비

매년 대천문화원 주관으로 주립산 3.1운동의거일인 3월 16일에 주립산 3.1운동과 보령 항일애국지사들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16) 주립산 기미독립만세진원지비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증산리 산 65-1(주립산 정상)
- 지정 :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관리번호 : 23-1-9)

1919년 3월 16일 18명의 의사가 주립산에 올라 독립만세를 부른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이다. 18의사의 명단과 독립만세 사실을 기록하였다.

17) 벼루장인 김진한(金鎭漢)

- 지정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1987년 12월 30일)
- 주소 :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74

보령의 벼루는 조선시대부터 그 맥을 이어 오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도 전국 유통의 대부분이 보령산이다. 성주산을 중심으로 좋은 돌이 생산되어 벼루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제작기법 때문이다.

현재 보령지역에는 많은 뛰어난 벼루장인들이 있는데, 그 중 김진한(金鎭漢, 1941~)은 3대째 그 기법을 전수받아 가업으로 삼고, 30여 년 동안 벼루를 제작해 왔다. 그는 1987년 충남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96년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그의 벼루는 문화상품조달물자로 지정되었다.

김진한(金鎭漢 1941~)

- ① 주소 :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49.
- ② 기능종목 : 옥석공예
- ③ 주 제작품목 : 보령 남포벼루
- ④ 제작가능품목 : 산수연, 용연, 십장생연, 포도연, 매화연, 송학연, 난연, 봉황연, 사군자연, 일월연, 연꽃연, 풍속연, 거북연, 석란연, 화초연.
- ⑤ 입문기간 : 1951년 3월부터 현재까지
- ⑥ 입문경위 : 조부 때부터 가업으로 전수
- ⑦ 전승계보 : 김형수(1880년대, 조부) → 김갑용(부) → 김진한(본인)
- ⑧ 1987년 12월 30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
- ⑨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명장 (노동부)
- ⑩ 1999년 3월 2일 문화상품조달물자 지정을 받았음.

2. 지정되지 않은 유적

1) 충혼각

- 위치(구) : 보령시 대천동 산 28-5번지(봉황산체육공원내)
(신) : 보령시 궁촌동

충혼각은 6·25 동란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토방위를 하다가 생명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그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1965년 7월 보령군의 지원으로 세워졌다. 9평의 건물에 흩어진 561위의 위패를 제작 안치하였다. 봉안하는 위패 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물이 협소하여 1987년 10월 30일 당시 대천시의 지원으로 15평으로 개축하였다.

이 충혼각은 2008년 6월 6일 궁촌동으로 확장 신축 이전하였다.

〈구 충혼각 상황〉

- 위치 : 보령시 대천동 산 28-5 번지 (봉황산, 부지 5,036㎡)
- 건평 : 건평 49.58㎡ (약 15평)
- 주요시설 : 충혼각, 충혼탑,
- 위패 봉안 : 855위(위패 명단은 성씨·인물편 참조)

연도별	1965	1971. 5	1973. 6	1977. 6	1985. 6	1986. 6	1987. 6	2000. 6	2003, 5
안치수	561	38	76	58	45	22	9	9	65



새로운 충혼각 준공식



충혼각(구)

충혼각은 참배와 추념행사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잊혀져가는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참회하면서 범시민적 애국심을 승화시키고 호국의식을 함양하는 시설이다. 참배는 정기참배와 유족과 방문자들의 수시 참배가 있으며 정기참배는 매년 1월1일 새해참배와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시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보훈회관 주관으로 매월 초일에 대한상이군경회장, 전몰유족회장, 전몰군경미망인회장과 유족들이 함께 참배를 드리고, 학생들의 현충일 참배, 10월 국군의 날 군부대 간부들의 참배행사 등이 있는 바, 시의 주관으로 하는 새해와 현충일 참배 행사는 다음과 같다.

〈새해 참배〉

- 일시 및 장소 : 매년 1월 1일 10:00 / 충혼각 광장
- 주요 참석자 : 기관단체장, 의회의원, 유족, 보훈단체, 시청 및 경찰서 간부공무원, 시민 등
- 진행 : 유족대표 초헌, 기관장 헌화 분향, 일동 묵념 순

〈현충일 추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매년 6월 6일(현충일) 09:55 / 충혼각 광장
 - 주요 참석자 : 기관단체장, 의회의원, 유족, 군인, 학생, 시민, 공무원 등
 - 진행 : 헌작(미망인회 및 유족대표), 국민의례, 묵념(10시
전국동시 사이렌), 조총례,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현충일노래 제창,
- ※ 보령시 주관 충혼각 참배행사 후에는 경찰묘지(남포면 이어니재)와 김좌진 장군 묘소(청소면 재정리) 참배 순으로 진행하고 있음.

2) 홍도원 보부상 유적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조선후기에는 지방 장사가 발달하여 전국에 천여 개의 5일장이 열려, 필요한 물건을 팔고 샀다. 5일장을 돌며 장사하여 지방 유통경제를 발달시킨 상인들이 보부상이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각 지역의 보부상들이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과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 해서 상무사라는 보부상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홍도원 묘사(墓祠)

보령·홍성·청양 등지의 보부상들도 1851년 예산 대홍 사람 임인손(林仁孫)이 중심이 되어 홍주·결성·보령·청양·대홍 등의 보부상을 중심으로 5읍상계(商稷)를 조직하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 지역 내의 시장을 관할하여 오다가, 1901년 오천군 설치이후 기존의 5읍 지역에 오천군을 포함하여 6개의 군지역 보부상들이 〈원홍주등6군상무사(元洪州等六郡商務社)〉라는 보부상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대천·광천·홍성·청양·오천 등지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원홍주등6군상무사의 근거지를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홍도원에 두고 사무처리, 휴식공간, 숙식공간, 묘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지금도 홍도원에는 원홍주등6군상무사 소속의 논, 밭, 임야, 건물, 묘지가 남아 있으며, 매년 한식날에 제사를 지낸다. 또한 이 보부상 조직은 2년마다 총회를 열어 회장인 집장을 선출한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마지막 보부상 단체인 셈이다. 그리고 원홍주등6군상무사에는 청금록·선생안·완문·절목 등의 많은

보부상관련 문서들이 전해진다.

한일합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국의 보부상 조직은 모두 소멸하였는데, 보령과 홍성지역의 보부상 단체인 원홍주등6군상무사만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어오고 있다.

원홍주등6군상무사는 각 시장에 임소(任所)를 두고 시장을 관할하는 사무를 보았는데, 이 곳 홍도원도 시장은 아니지만 보부상의 조직관리, 휴식, 구호, 제사 등의 제반 사무 처리를 위해 임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 보부상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원래 기와집이었지만 함석지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집이 한 채이지만 주변에 몇 채의 집이 헐렸다고 한다.

이 건물은 과거 이 지역의 시장발전과 관계있는 보부상 유적의 중요한 부분이고, 보부상들이 실제 사용하던 원형의 유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그런데 6군상무사의 다른 유물들은 모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으나 이 임소 건물은 2008년 1월 현재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이 임소 건물의 중건기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고(중요민속자료 30-4-28) 건물은 지정되지 않은 모순을 낳고 있다. 중건기 외에 원홍주등6군상무사단체비, 선고인합동위령비, 반수정건모한식제담기증비가 중요민속자료(제30-4호,1992. 7. 24)로 지정되었다. (임소 중건기는 비문편 참조)

〈건물의 상황〉

○본채

1527cm× 390cm 약 18평, 부엌, 방 3, 대청 1, 남면 툇마루, 동면 툇마루.

○아래채

672cm× 272cm 약 5.5평, 방 1, 광 1, 헛간 1.

3) 성연리 용못

성연리 마을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에 있는 웅덩이로 오서산 계곡의 성골마을과 성당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쳐지는 곳이다.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형성된 깊은 웅덩이인데 예로부터 용못이라 부르고 가뭄에는 기우제를 지냈다. 동국여지승람 보령현 산천조에 ‘용연(龍淵)은 보령현(현 주포)의 북쪽



성연리 용못

15리 지점과 또 동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모두 날이 가물면 비를 비는 곳이다.(龍淵在縣

北十五里又在縣東十五里亦有龍淵皆天早禱雨之處’라고 하여 북쪽의 용연이 이곳 성연리 용못이고, 동쪽의 용연은 청라면 황룡리 용못을 가리킨다.

4) 갈매못 천주교 순교성지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바닷가에는 있는 천주교 순교성지이다. 1866년 홍선대원군에 의해서 행해진 병인박해 때 안 다블리(Daveluy) 안토니오 주교, 민 위앵(Huin) 루카 신부, 오 오매르뜨(Aumaitre) 베드로 신부, 장주기(張周基) 요셉 회장, 황석두(黃錫斗) 루카 회장 등 5인의 성인(聖人)이 순교한 곳이다.



갈매못 성지

안다블뤼 안토니오 주교(49세)는 프랑스인으로 1866년 3월 제 5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충남 서부지역 포교에 전념하던 중 황석두(53세)와 함께 당진 지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인 오 오매르뜨 베드로 신부와 역시 프랑스인 민 위앵 루카 신부(30세)도 더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수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의금부로 압송되어 가혹한 문초를 받은 뒤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마침 고종과 민비의 국혼일(國婚日)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던 관계로 서울 도성 안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이곳 보령의 충청수영까지 끌려와 갈매못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장주기 요셉(63) 회장도 그들과 함께 순교할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죄인 행렬에 참가하여 함께 3월 30일 처형되었다. 이들은 처형되는 순간에도 편안한 표정과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 땅의 천주교 변영을 하나님께 기원하며 죽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유해는 3일 뒤, 황석두는 가족들에 의해 연풍으로 안장되었고, 나머지 4명은 사형장 부근에 매장되었다가, 남포 서지골(현재의 미산면 평라리)로 이장되었고, 1882년 일본의 나가사키로 옮겨졌다가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된 후인 1894년 서울 용산 신학교를 거쳐 1900년 서울 명동성당 지하실에 안치되었다. 이어서 1967년에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안치되었다.

조선말기 병인박해 때 국내신도 8,000여 명이 처형되었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중의 3인이 이곳 갈매못에서 처형된 것이다.

나라에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추적하였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가 중국에 있는 프랑스 해군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박해 사실을 알려 병인양요를 초래하게 된다.

이 순교성인 5인은 1968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로마 교황청에서 시복(諡福)되었다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는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이 갈매못 사형장은 1926년 부여 금사리 본당 주임 정규량 신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견되었으며, 1968년 대천성당 유영소 신부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토지를 매입 하였고, 1975년 순교 복자비를 세웠다. 1999년에는 경당과 사제관 수녀원 등이 완공되면서 성역화 되어 이 땅의 천주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친 5인의 성인을 기리고 있다.

이외에도 그 후에 충청수영 갈매못에서 처형된 천주교 신자는 충청도 신창 사람으로 홍주에서 포교하다 체포된 박 베드로, 홍주 사람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손치양, 공주 사람으로 오페르트 도굴사건 때 구만포에서 서양 배와 내통했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이영중, 덕산 사람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이 발토로메오, 호서 출신으로 수영에서 체포된 임운필 등이 사형 당하였다.

5) 황룡리 용못

황룡리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의 웅덩이다. 하천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형성된 깊은 웅덩이인데, 예로부터 ‘용못’이라 부르고 가뭄에는 기우제를 지냈다.

동국여지승람 보령현 산천조에 ‘용연(龍淵)은 보령현(현 주포)의 북쪽 15리 지점과 또 동쪽 15리 지점에 있는데, 모두 날이 가물면 비를 비는 곳이다(龍淵在縣北十五里又在縣東十五里亦有龍淵皆天旱禱雨之處)라고 하여 동쪽의 용연이 이곳 황룡리 용못이고, 북쪽의 용연은 청소면 성연리 용못을 가리킨다.

현재는 이 용못 아래쪽에 보(洑)가 설치되어 있다.



황룡리 용못

6) 가소정(可笑亭)

청라면 장현리 장밭마을에 있다. 건물은 사모집에 홀처마의 납도리식으로 대지 위에 방형의 자연 초석을 놓은 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건물에는 마루가 있으며, 높이 50cm 정도로 난간이 둘러져 있다. 건물 상단에는 가소정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그리고 현액의 좌우에는 글이 쓰인 여러 개의 목판이 걸려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아마 주변 선비들의 詩가 아닌가 싶다. 이 정자는 安東人 金履澈(1782~1855)이 18세기에 건립한 것이라 하는데, 김이철은 선원 김상용의 후손으로 이곳에 은거하였고, 그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김이철의 호가 가소(可笑)여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곳에 은거하며 시를 읊고 통소를 부는 뜻으로 세운 것이다.

그의 현손 규중(圭重)이 중수하였다고 한다. 규모는 작지만 생활주변에도 작은 정자가 있는 한국정자문화의 한 표본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나 최근 보령시에서 보수하였다.



가소정

7) 이어니재 경찰묘지(만세보령지킴터)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이어니재

1950년 6·25전쟁 때 보령지역이 7월 초순 공산군에게 점령되자, 장항으로 후퇴했던 보령경찰과, 천안 철도경찰대원들은 다시 비인에 집결하여 주산에서 공산군을 방어하기 위해 주산으로 들어왔다. 정철모 총경이 지휘하는 천안 철도경찰대가 선봉부대로 주산에 들어와 전열을 정비하던 중 이미 주산에 들어와 잠복 중이던 공산군의 기습을 받아 6명은 현장에서 전사하고 정철모 총경 이하 10명은 포로로 붙잡혔다.

현장에서 전사한 6명은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야룡리 산조개 마을 산기슭에 묻혔고, 포로로 잡힌 10명은 웅천자위대원들에게 인계되어 웅천지서에 감금되어 고문을



이어니재 경찰묘지

담한 후 7월 27일 오후 2시 이어나재에서 총살당하였다.

총살된 10명 중 2명은 가족이 찾아가고 나머지 8명의 시신은 주민들에 의해 수습되어 합장으로 되었다. 당시 매장한 지점은 현재 묘지 입구 큰 소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후 1985년 10월 21일 이어나재에 있던 8위와 주산에 있던 6위의 시신을 합쳐 큰 묘를 만들었다. 이때 묘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각종 비도 세웠다. 보령경찰서 안에 있던 6·25전몰 경찰관의 비도 이곳으로 옮겼다.

이어서 2007년 재정비하면서 ‘만세보령지킴터’로 이름하였다. 새해 첫날, 경찰의 날, 현충일 등에 보령시와 경찰서가 참배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주산전투 희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계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총경	정철모(鄭喆模)	1921. 1. 8	서울 종로
경위	김낙이(金洛珥)	1923 .4. 9	황해 황주 강서
경사	김영록(金永錄)	1928. 4. 6	경기 안성 안성
경사	김한기(金漢基)	1926. 3. 8	강원 춘천 소양
경사	김희용(金熙鎔)	1926. 8. 10	경기 포천 포천
경사	박동화(朴東和)	1927. 1. 29	전북 익산 황등
경사	박원배(朴源培)	1926. 3. 4	황해 서흥 내덕
경사	임형식(林亨植)	1928. 11. 2	경기
경사	손창수(孫昌洙)	1919. 5. 31	강원 춘천 대흥
경사	신정호(申正浩)	1924. 1. 17	경기 평택 청북
경사	이도열(李堵烈)	1924. 4. 18	경기 용인 이천
경사	이희영(李喜永)	1924. 3. 3	충남 홍성 홍북
경사	이준식(李俊植)	1923. 3. 7	충남 아산 진양
경사	임헌호(任憲鎬)	1927. 5. 24	경기 평택 평택
경사	전남전(全南筌)	1923. 4. 8	경기 안성 금광
경사	추백수(秋白壽)	1928. 5. 13	충남 서산 팔봉

8) 주산 화평리 들돌

주산면 화평리 화산내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는 주막이 있었고, 이 주막 앞에는 들돌이 있어 농한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들돌 들기를 시합하며 즐겼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놀이가 없어졌고, 1996년 경지정리 사업 때 매몰되었다. 2005년 보령문화연구회는 이 들돌을 발굴하여 원위치인 화평리 정자나무 아래에 놓았다. 이 들돌의 크기는 직경

56cm, 무게 118kg이며, 표면에는 ‘珠山面 花坪里 花山洞内’라고 써여 있다. 들돌은 화평리 외에도 주산면 삼곡리, 주포면 봉당리 등에도 확인되고 있다. 들돌은 신앙의 상징물이었고, 통과례의 도구였다. 즉 힘을 이용해 이 들돌을 들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산업화와 전통문화의 무관심속에 현재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화평리 들돌

9) 남심리 태실 유적

- 위치 :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태봉마을
태실은 왕실과 관련된 왕·왕비·대군·왕세자·왕자·왕세손·왕손·공주·옹주 등이 태어나게 되면 태를 묻는 석실을 말한다. 태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한 후, 미리 정해진 태봉에 태실을 조성하고 태항아리(胎壺)와 지석(誌石)을 묻게 되는데, 이것을 안태(安胎) 또는 장태(藏胎)라고 한다.



명선공주 태실의 태호

남심리의 태봉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의하여 옛날 어느 공주의 태를 묻은 산으로 막연하게 전해져 왔다. 남심리의 태봉산은 야트막한 샷갓 모양의 산봉우리가 들판으로 뻗어 나와 형성된 산으로 주위에는 비슷한 산줄기가 포용하듯이 에워싸고 있고 주위의 물줄기들이 태봉산 앞에서 모아져서 빠져 나가는 명당의 형세를 이루는 곳으로 다른 곳의 태봉과 지형이 유사하다.

보령 남심리의 태봉의 주인공은 조선 18대 임금인 顯宗(재위 1659~1674)의 장녀인 명선공주(明善公主)이다. 이 명선공주 태실은 1929년 5월 남심리에서 서삼릉으로 이전되었다.

일제 시대인 1928년부터 1930년 사이에 총독부의 명령으로 이왕직(李王職)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선 왕실의 태실들을 조사해서 그 중 54기를 원위치에서 이전하여 경기도 고양 서삼릉 경내에 안치하여 서삼릉태실(西三陵胎室)을 조성하였다. 태실의 파괴를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미산 남심리의 태실도 당시 이전된 54기 중의 하나이다.

199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서삼릉태실군에 대한 발굴을 하여 이전 당시 옮겨진 유물들을 확인하여 『西三陵胎室』이라는 보고서를 내었다. 이 보고서에 의해 명선공주 태실의 태향아리와 지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석에는 양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면) : 己亥年十一月十五日丑時

誕生公主阿只氏胎

(후면) : 順治十七年二月十七日巳時藏

이에 의하면 명선공주는 1659년(현종 원년) 11월 15일 태어났으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660년 3월 2일 왕실의 여러 절차를 거쳐 이곳 보령 미산 남심리에 장태(藏胎)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의 지명이 태봉리로 불리어 왔고 지금도 태봉 마을로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 270여 년 만에 다시 서울 서삼릉으로 이전된 것이다.

이어 명선공주는 13세 때인 1671년 맹만택(孟萬澤)과 혼약하였으나, 2년 뒤인 1673년 15세에 미처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현재 해발 173.8m의 남심리 태봉산의 정상에는 현재 폭 1m, 깊이 2m의 무너진 구덩이만 남아 있다. 태실의 구조물은 태함(胎函)·태향아리(胎壺)·태지석(胎誌石)·엽전(葉錢) 그리고 아지비(阿只碑) 등으로 구성된다. 1929년 서삼릉 태실로 태실이 이전된 후 남아 있던 태함과 아지비는 1980년대 분실되었다. 서삼릉 태실에 있는 남심리 명선공주 태실 유물은 다음과 같다.

○ 태향아리(胎壺)

① 외향아리(外壺)

【몸체】 : 높이 22cm, 구경 19cm, 저경 15.5cm, 기벽두께 0.6~1.5cm

구연이 외반되고 입술면은 둥글며, 어깨에서 배가 부르다가 저부로 좁아지는 기형이다. 어깨 밑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으며, 고리는 눌러서 접착하였다. 저부는 안 굽으로 모래받침 번조(燔造)를 하였고, 외면에는 봉합천과 주칠끈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에 담청색 투명유를 시유하였으며, 내면에는 물레 성형을 한 물레 자국이 보인다.

【뚜껑】 : 높이 11.6cm, 개경 24cm, 두께 0.5~0.9cm

보주형 손잡이가 달린 뚜껑으로 손잡이 목에는 종으로 긴 구멍이 4개 뚫려 있으며, 뚜껑

상면에는 2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봉합천과 주칠끈 자국이 남아 있으며, 내면에는 둥근 테 받침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에 담청색 투명유가 얇게 시유되어 있으며, 기벽이 얇다.

② 내항아리(內壺) - 그림 참조

【몸체】 : 고 13.8cm, 구경 9.5cm, 저경 8.8cm, 기벽두께 0.4~1cm.

구연이 외반되고 입술면이 둥글며, 짧은 목에 어깨가 벌어지다가 저부로 좁아지는 백자 항아리이다. 어깨 밑에는 4개의 C자형 고리가 달려 있으며, 저부는 안굽으로 모래받침 번조를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에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으며, 내면에는 물레 성형을 한 물레 자국이 보인다. 구연 내면에는 유약을 바르기 위해 잡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다.

【뚜껑】 : 높이 8.5cm, 개경 13.3cm, 두께 0.4~1.3cm

목이 긴 둥근 손잡이가 달려있는 뚜껑으로 손잡이 목에는 종으로 긴 구멍이 4개 뚫려 있으며, 내면에는 둥근 테 받침이 돌아간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에 담청색 투명유가 시유되었다.

조선 시대 백자항아리는 조선 초기에는 장신형(長身形)이었으나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오면 키가 작아지고 구부(口部)와 어깨가 벌어진 형태를 이루면서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명선공주의 태항아리는 이러한 조선 후기의 백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지석(誌石)

지석은 태실에 장태되는 주인공의 신분과 생년월일 그리고 장태일을 기록한 것이다. 명선공주의 지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질】 : 오석(烏石)

【規格】 : 가로 31cm, 세로 31.3cm, 두께 5.5cm

【설명】 : 음각 명문 내에는 주칠 자국이 남아 있으며, 제작 시기는 順治十七年(1660년)이다. 銘文은 지석의 前後면에 새겨져 있는데, 銘文 수는 全面 19자, 後面 13자 총 32자이다. 글자 크기는 2.5cm 내외이며, 글자 깊이는 깊다.\

○ 동전

동전은 보통 태실의 내항아리 바닥에서 출토되는데, 명선공주 태실에서도 중국 화폐인 開元通寶가 출토되었다.

3. 누정(樓亭)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보령지역에는 누정각(樓亭閣)이 10여 개에 이르나, 현존하는 건물로는 해산루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전해 오는 누정의 의의를 되찾기 위해 간단하게 기록해 둔다.

- 1) 해산루(海山樓) : 보령읍성 관아건물 참조
- 2) 무이정(武夷亭) : 보령읍성 내에 있던 어풍정을 중수하고 무이정으로 고쳤다.
최부(崔溥)의 武夷亭記가 있다. 보령읍성 관아건물 참조
- 3) 빙허당(憑虛堂) : 충청수영성 내에 있었다. 김극성의 7언시가 있다
(登臨望遠今朝最。立馬秋風意氣豪。鳥從雲際看來沒。波到天涯遙處高。)
- 4) 공해관(拱海館) : 충청수영성 내에 있었다. 공해관이라는 현편은 동농 김가진(東農 金嘉鎭)이 썼다. 충청수영성 관아건물조 참조
- 5) 영보정(永保亭) ; 충청수영성 내에 있었다. 충청수영성 관아건물 및 문화유적 記文편 참조.
- 6) 만취당(晩翠堂) : 청라면 장산리 西山 아래 松涯터에 있던 정자이다. 만취당은 天順·成化 연대에 만취당 金孟權이 소요하기 위해 건립하였고, 조선 현종 2년 (1661)에 증손 金泰國이 중수하였으나 낡아서 허물어졌다.
- 7) 우정(憂亭) ; 보령시 남곡동에 있었던 정자로 광산인 김극성(金克成)이 세운 정자였다.
- 8) 지계정(支溪亭) : 청라면 驛山에 있던 정자로, 한산인 李乘天이 세운 정자였으나 지금은 헐어 없어졌다.
- 9) 귀학정(歸鶴亭) : 청라면 장현리 금자동에 있던 정자로, 한산인 동계 이산광이 지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없어졌다. 구봉 송익필이 지은 오연율시 4수가 있다.

歸鶴亭猶在。亭空鶴不留。壇明天漢近。簾重海雲流。
月落泉鳴夜。山高露滴秋。無由聞遠籟。岐路雪盈頭。

吾友客南國。高亭墨尚留。孤舟無繫處。風海憶安流。
 別裏看明月。愁邊又一秋。浮雲連漢樹。遙夜幾回頭。
 浮海嗟吾晚。蠻鄉跡久留。感時天北望。懷舊水東流。
 匹馬尋眞路。千峯落木秋。思人簾政捲。孤月在山頭。
 一鶴歸玄圃。千年亭獨留。星光依砌落。山影入溪流。
 竹驚天外夢。荷破月中秋。逸志超塵世。長吟愧白頭。

이 시에 차운하여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은 ‘귀학정(歸鶴亭)에서 자며’를 지었다

나그네 발길 권태롭기만 해 / 遠客行惟倦
 높은 정자에서 잠시 쉬노라니 / 高亭跡暫留
 새들은 재빠르게 숲 찾아들고 / 鳥投幽藪急
 물은 먼 바다를 향해 흐르네 / 水向大荒流
 말없이 앉아 눈에 띄는 것들 보니 / 默坐觀群物
 허무한 인생 몇 해나 산다던가 / 浮生閱幾秋
 인간의 운명 이미 정해진 것을 / 升沈元已定
 부질없이 머리 긁으며 걱정할 게 뭐라던가 / 何事謾搔頭

10) 옥계정(玉溪亭)

청라면 옥계리에 있던 정자로 李貞敏이 지은 정자였다.

11) 가소정(可笑亭)

청라면 장현리에 있는 정자로 안동인 金履澈(1782~1855)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시를 짓고 통소를 부는 뜻으로 세웠으며, 지금도 남아 있다. 김이철의 호가 가소(可笑)였다. 현손 金弘圭가 중수하여 새롭게 했다. 현재 보령지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자이며, 최근 보령시청에서 다시 보수했다.

莫笑一間可笑亭 비웃지 말라, 한 칸 가소정을
 亭名從古各有形 정자 이름은 예로부터 각기 모양에 따라 짓느니!
 先生心事本如水 선생이 심사가 본디 물과 같아
 八耄光陰以笑經 여든 살 세월을 웃으며 사네.

12) 매죽당(梅竹堂) : 오천면 소성리에 있던 정자였다.

13) 관덕루(觀德樓) : 충청수영성내에 있었다.

- 14) 능허각(凌虛閣) : 충청수영성내에 있었다.
- 15) 공금당(控襟堂) : 충청수영성내에 있었다.
- 16) 사관정(四觀亭) : 수영성내에 있었다.
- 18) 진서루(鎭西樓) : 남포읍성 내에 있다. 남포읍성 관아건물조 참조
- 19) 이락정(二樂亭) : 무송인 윤사수(尹士秀)가 웅천읍 대천리에 지은 정자였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二樂亭記」가 있다.

茂松尹士秀。平生好寥廓。樂山澤之遊。卜居於藍浦之熊溪。名其亭曰二樂亭。以我善言山水。請爲之記。余曰。子之亭何如。曰亭西臨大海。海霞島霧。變態異狀。或騰而爲雲。或聚而爲雨。或散而爲晴霞霽氣。極目燕齊之涯。煙濤萬里。玉馬峨嵋。羊角星臺。連嶂比嶠。環列其傍。大川灣洄。西流入海。海峯西。又有菁淵龍湫。石壁幾千尋。此皆可遊而樂者也。余悵然曰。自古魁梧奇偉之士。或隱於海上。樂而忘世者此也。吾好遊行於東南。觀日月之出。南盡嶺海之外。極於鳥次耽津。其遊可謂極矣。獨不及泗泚之西。今老矣。雖欲一遊。何可得也。次其言。作二樂亭記。夫所謂二樂之義。聖人已言之。子歸而求之。自得之耳。己亥元月上弦夕。孔巖眉叟。記。